

The Builder I.

더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에서 할 일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1. 내리막길과 오르막길

인생을 길에 표현한다. 평탄한 길도 있지만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다. 산행도 마찬가지이다. 산을 오르는 오름이 있다면 언젠가는 내려오는 내림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행을 하며 치유되기도 하고, 많은 것을 깨닫는다. 문제는 오름과 내림의 성격이다. 오름과 내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격이다. 절망으로 오름과 내림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소망과 기쁨으로 오름과 내림을 할 수 있기도 하다. 신앙은 오름과 내림 자체에 초점이 없다. 오름과 내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오르고 내리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그래서 신앙에서 오는 가장 큰 인생의 유익은, 눈 앞의 일만 보다가 조금 더 먼 곳을 바라보며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순간이 바로 고통의 시간들이다. 고통 자체도 힘이 드는데, 고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바닥까지 내려갈 때이다. 그와 같은 순간은 마치 늪과 수렁에 빠진 것과 같다.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결국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단계로 내려간다. 그 장소가 바로 '절망'이다. 절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이다.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불꽃 하나 남겨지지 않은 상태, 물 한 방울, 한 모금 없는 상태를 말한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절망의 상태가 위험한 이유는 갑자기 절망으로 빠진 것이 아니라, '설마 거기까지 가겠어?'라는 막연한 마음이 현실이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물이 스폰지에 젖어드는 것처럼, 시간 속에서 완전히 젖어드는 물 먹은 스폰지의 상태이기 때문에 힘이드는 것이다. (고통의 축적)

2. 신앙은 바닥을 해석하는 힘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바닥을 두려워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궁극적 인생의 절망을 피해 갈 수 없다. 희망과 기쁨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절망의 바닥으로 모두가 내려간다. 그가 누구이든 예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에 대한 전도서의 '허무함'은 타종교의 허무함과 다르다. 타종교의 허무함은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태를 말하지만, 전도서의 허무함은 '이제 알았다는 것이다. 무엇이 허무하게 하는지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허무함은 다음 단계를 본 소망이요, 기쁨이다. 그 소망과 기쁨이 세상이 해석할 수 있는 일들의 지혜가 된다. (지혜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는 순간을 말한다)

사탄의 미혹은 무엇인가? 마치 '바닥'이 없는 것처럼 미혹하는 것이다. 바닥이 없는 것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고 말한다. 생각없이 사는 것이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절망의 바닥을 보여준다. 두려움에 묶이게 한다. 바로 그것이 '죄에 종노릇 하는 상태'이다. 마지막 죽음이라는 절망을 보여준다. 그리고 답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네가 속았다는 것을 알았냐? 이제 길이 없다. 너는 그렇게 절망으로 죽는거야.' 라고 참소하며 조롱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절망이라는 바닥을 소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다. 사람의 능력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 바닥을 우리를 위해 친히 변화시키셨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정해진 죽음이라는 절망의 바닥을 천국으로 가는 '소망'의 문으로 변화시키셨다. 그분이 그 문이 되셨다.

[요한복음 11:11]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려 가노라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바닥을 다시 해석하십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가신 예수님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셨다.

예수님이 정복하신 죽음이라는 마지막 바닥이 영원한 소망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능력으로 나타난다. 복음은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이다. 매 순간 이 엄청난 진리가 능력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에 있는가? 옴을 보라. 그의 고난은 사람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의 상황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순간이 올라갈 수 있는 절대적 희망이 보이는 단계이다.

3. 복음의 비밀

복음은 죄인 된 나를 고백하는 것이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죄인에게 정해진 것은 사망이다. 이미 언도된 이 사망의 몸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때 의로운 변호인이신 예수님의 변호가 필요한 것이다. 그분의 변호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절망의 죄인'이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 순간이다. 바로 그때, 역설적으로 소망의 순간이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에서 돌이키라는 것이다.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 순간이 바로 천국이 보이는 순간이다.

4. 느헤미야의 건축

이에 해당되는 사람이 느헤미야이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신다. 언제 그 일이 시작되는가? 바로 느헤미야가 경험한 절망 속에서 시작된다.

[느헤미야 1:3-4]

3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4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오늘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지는 하늘의 비전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그것은 철저히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이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며 그 내면이 절망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어떤 소망도 없는 절망의 상태이다. 성경은 '주저 앉아서 울었다' 라고 느헤미야의 절망을 묘사한다.

바로 이 순간이 하늘의 비전이 임하는 순간이다. 눈물을 흘려도 더 흘릴 눈물이 없는 상태, 상한 마음이 더 이상 상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하늘의 비전이 임하는 순간이다.

5. 바닥은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절망의 바닥에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 뿐이다. '건축과 재건'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단순한 마음이 '빌다'의 사명이며 소명이다.

[느헤미야 2:4-5]

4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5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 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 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닥은 결정할 힘을 준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 사명은 분명한 목표이다. 이루고야 말겠다는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사명'과 함께 온다. 사명은 '바닥'을 본 처절함에서 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살리려고 오셨다. 다른 이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절망을 보셨기 때문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살리는 것 말고 없다. 올라가는 길 말고 없다. 홍수 심판이 언도되었다. 그 순간 예비된 것이 방주를 통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절망은 오히려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한다.

6.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언된 비전으로 온다.

누가 세우는 자인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는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전으로 온다.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언하셨다. “내가 죽지만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바닥에 있는가? 그 순간이 바로 결정의 순간이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된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으로 온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사명의 그릇에 비전으로 담긴다. 하나님의 비전이 임한 한 사람이 나라 전체를 세울 수 있다. 빌더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한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에 사명으로 임한다.

‘반드시 하고 말겠다는 그 사명이 비전이 된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이다.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절대 죽지 않는다’ 기억하라.